

2014년 5월 25일

토요일, 주일 2,3부 설교 김은관 목사

자비를 알면 내가 보입니다

딤후 1:13-16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죄만을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나를 감싸시고 덮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곧 사라져 버린다고 단정하고 맙니다. 그래서 죄의 댓가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댓가를 치르는 것도 죄가 아니라 죄인이 치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시 5:5-6)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나 1:2)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신 6:15)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과는 달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만, 신약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3:36)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롬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골 3:5-6)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 말씀들은 죄에 대해 깊이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빨리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결코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롬 2:12)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회개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셨고,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고, 바울도 회심한 후에 회개하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래서 멸망받기 전에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지 죄를 짓는 것이 싫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 34:14)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를 질투하시고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셔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감싸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로 부부가 되면 이제는 둘 사이에만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배우자를 향해 '괜찮아, 다 이해해.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라고 한다면 그건 애정이든, 정신적이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신다는 말이 뭔가 잘못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터무니 없는 말이 아리송해~'

터무니 없는 말과 같지만,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아리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불같이 진노를 하시지만, 또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회심 후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절감했습니다. 그가 쓴 모든 서신에서 그는 죄에 대한 얘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고는 복음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크고도 놀라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딤펴전 1:13-14) 내가 전에는 휘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보니,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흉악하고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큰 죄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그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진노의 대상이라 이미 멸망받을 자였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딤펴전 1:15)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민족 베냐민 지파 집안이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하생이며, 바리새파 사람이니 처음부터 좋은 것들은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올바르고 확실한 일등 신자인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휘방하고 핍박하는 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가장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랍니다. 그 책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첫 장을 넘겨서 보니까, 글이 잔뜩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행한 악한 행동들이요.” 그 사람은 당황스러워서 얼른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거기는 더 많은 글들이 뽁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뱀은 악한 말들이요.” 창피해서 다음 장으로 급하게 넘겼더니, 거기는 흰 바탕이 안보일 정도로 새까맣게 글이 적혀 있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품은 악한 생각들이요.” 너무 너무 창피하고 떨려서 책을 확 덮어버렸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게끔 나타나는 행위들은, 그보다 더 많은 말들과, 그 보다 더 많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합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창피해서 이렇게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뽁뽁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감추어져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신앙있는 집안에서 자라고, 성경을 많이 알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 봉사에 열심을 다해도 죄의 문제는 그대로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던 죄들이 드러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드러났고,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시기 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삼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
2. 종교에 대하여 계속 친숙하다는 점,
3. 성경을 읽고, 교회에 잘 출석을 하고 또한 기도를 드린다는 점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 오는도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온 모든 것이 흉악한 죄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끔찍한 죄입니다. 거룩한 척하며 겸손한 척하며 선한 척하며 겉으로 꾸민 모든 것이 더러운 죄입니다. 주님은 내가 지은 이러한 죄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꾸 그 죄를 보편화하여 나와 분리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빼고 일반적인 죄의 문제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만약에 보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해결하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 바로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끔찍한 죄로 인해 자신이 죽어 마땅한데, 자신을 대신해서 끔찍한 죄의 값을 치르신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딤후 1:1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어떤 자비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신 자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인도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자비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비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죽은 목숨인데, 아무 희망이 없는 생명인데, 그런 자를 구원하신 자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심장병 환자가 그 기능이 거의 멈춰서 수술도 불가능하여 곧 죽게 되었습니다. 언제 심장이 멈추고 죽을지 몰라 침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병실로 걸어 들어와서, 그 청년이 기꺼이 자신의 심장을 주겠다고 해서 그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고 그 청년은 자기 대신 그 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젊은 청년이 왜? 무슨 이유로? 내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나에게 대신 생명을 이어가게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알고나니,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가 크다고 여기면 은혜가 큰 것이고, 죄가 작다고 여기면 은혜도 작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만약 예언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텐데’라고 속삭이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오십 데나리온 빚진 자가 똑같이 빚을 탕감받았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고 얻은 생명을 생각하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감사뿐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전해야 더 효과적일까 하여 마우스를 부지런히 움직여서 앞으로 옮기고 뒤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선포해야 할텐데, 아직도 부족한 설교자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제 말씀이 잘 정리되지 못한 말씀이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자신의 죄에 대해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자비하심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바울처럼 확실히 깨달으려면 멀었는가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이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한결같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였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롬 5:8-9)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마다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필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품, 그리스도의 지도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철학 등 많은 것들이 있을텐데, 왜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였을까요? 그의 죽으심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갈 6:14)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 당한 사람이 있는 집안은 아예 그 동네에서 쫓겨날 정도였습니다. 왜 입에 담기도 싫어하고생각하기도 꺼려지는 십자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텐데, 아예 그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수준있는 것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영향력이 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출신, 내 학력, 내 경력, 내 열정, 내 공로, 이런 것들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달려야만 했던

흉악한 죄인인데,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그에게는 어느 것보다 소중한 값진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걸린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십자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자랑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자랑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진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